
망석승희 내용 중 '십장생'. 읊조리는 화청소리에 십장생이 차례로 떴다가 다시 차례로 사라진다.


전통 그림자극 망석승희를 계승하고 있는 거창 만석중놀이보존회 단원들.


극 중 여의주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용과 잉어'와 함께 작법에 임하는 한 대수 씨.

고려시대 망석승희가 일러주는 '人生無常'

연등회보존위, 만석중놀이보존회 초청 '망석승희' 시연회

고려시대 관등놀이로 연희돼
무언 · 그림자 · 전통 인형극
십장생 · 망석중 등 모습 통해
헛된 탐식과 인생무상 표현

고려시대부터 사월초파일 관등놀이의 하나로 연희되던 망석승희(忘釋僧œ)가 10여년 만에 서울서 재현됐다.

거창 전통그림자극 만석중놀이보존회는 연등회보존위원회의 초청으로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서 초파일 민속연희 '전통그림자극 망석승희'를 시연했다. 연등회보존위 측은 "망석승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해 숭유억불 조선시대를 거쳐 점점 쇠퇴하다 1920년대에 명맥이 끊긴 초파일 민속연희 전통 그림자극이다. 1983년 일반극단서 '만석중놀이'란 이름으로 재현복원 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여러 지역 사찰서 사월초파일마다 시연해왔지만 서울에선 1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망석승희는 글을 모르는 민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쉽고 재밌게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교극이다. 큰 절 또는 마당 넓은 민가서 담이나 넓은 벽을 의지해 기둥을 세우고, 차일을 평평하게 붙잡아 매 흡사 극장 영사막처럼 장치했다. 그 뒤에 화톳불을 피워놓고 사람이 숨어 그림자만 나오게 놀리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 그림자극이다. 또한 대사가 없는 무언극이며, '망석중'이란 나무 인형을 사용하는 전통 인형극이다.

40여 분간 무언(無言)으로 진행되는 이 공연은 뛰어난 음향과 영상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은은한 주황빛 스크린 위 춤추는 십장생과 '탁' '탁' 죽비소리를 내며 서 있는 망석중 그림자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망석승희가 일러주는 부처님 가르침에 빠져든다.

특히 극의 절정에 다다르면 용과 잉어가 등장해 서로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이는 헛된 탐식과 영욕을 좇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이번 시연의 연출을 맡은 한대수 씨는 "'망석중'이라하면 스님들을 희화하고 폄하하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망석중은 스스로를 '중'이라 낮춰 부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다. 십장생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과 머리를 치는 모습은 어리석음을 스스로 탓하는 깨우침"이라며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망석승희가 불교계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등회보존위 측은 "이번 재현행사는 불교계서 시연 주최를 구성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며 "오늘 시연 후 현대에 맞게 재현해 사월초파일 마다 공연, 계승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연에 나선 만석중놀이보존회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명맥이 끊겼던 망석승희를 현대까지 계승해 온 단체다. 1983년 한국민속극연구소 부설 극단 서낭당서 재구성해 발표한 것을 토대로, 1997년 창립됐다.

만석중놀이보존회 공연은 민속학자이자 1인극 배우인 심우성 씨가 고증 및 구성을 맡았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예능보유자 故 일응스님이 화청을, 한대수 씨가 연출 및 작법을 맡았다. 이밖에 박용기 · 김현영 · 이종진 · 황덕하 · 박동화 · 하용현 · 표주향 씨 등이 참여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강남전통예술단 무용단원 공개모집

훈련장 1명 · 무용단원 5명… 12일 까지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이 강남전통예술단(단장 정성숙) 무용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중 무용전공자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훈련장 1명과 무용단원 5명이다.

응시자격은 강남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에 규정한 결격사유 없는 자로, 키 165cm 이상 가능하다. 접수는 3월 12일까지 이메일(jss5804@naver.com)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증명사진 첨부) △주민등록초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외국의 경우 번역본 공증) △경력증명서 · 수상경력증명서 · 기타 경력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이메일 접수시 각 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실기심사 시 제출할 것.

실기심사는 3월 13일 오전 11시 강남구민회관 연습실서 자유작품(전통무용 및 창작무용)으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4일 개별 통지된다.

한편 강남전통예술단의 '강남연가'는 조선시대 한강에 설치된 최초 나루터 사평나루와 봉은사를 배경으로, 여사당패 '이화'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춤과 소리로 표현하는 전통 연희극이다.

박아름 기자


강남전통예술단 정성숙 단장이 강남연가 공연서 인사를 하고 있다.

동자승과 노승의 여정, 베를린 사로잡다

Interview

'앙뚜' 문창용 감독

"제가 영화에 담고자 했던 이야기가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단 자체가 놀라웠어요. 오랫동안 작업한 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앙뚜'로 제67회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성장영화 섹션)서 심사위원 선정 최우수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한 문창용(47) 감독. 문 감독은 3월 1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서 "관객과 공감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소감과 함께 '앙뚜' 제작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앙뚜'는 린포체인 주인공 앙뚜가 사원서 쫓겨난 뒤 노스승 우르갼과 함께 전생에 머물던 티베트의 한 사원을 찾아 떠나는 내용이다. 해발 3,500m의 라다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둘의 이야기는 한없이 사랑스러웠다가도, 또 고난을 겪기도 하며 끊임없는 관계변화가 생긴다.

"2009년 EBS 의학 다큐멘터리 촬영차 라다크를 찾았다 앙뚜와 우르갼을 처음 만났는데 둘이 주고받는 눈빛, 웃음, 표정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었죠. 둘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담고 싶단 생각에 영화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자가 아닌 문 감독이 동자승과 노승의 이야기를 담은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적 이야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집안은 불교지만, 전 독실한 불자라고 할 수 없어요. 불자이고 아니고를 떠나 단지 둘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고행의 길을 떠나는 동자승과 노승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모습서 수행의 가치를 엿볼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충분히 아름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 감독은 그렇게 2009년부터 해마다 2~3차례 라다크를 찾았다. 특히 문 감독은 앙뚜가 스승

전진 감독과 라다크서 8년간 촬영
린포체 앙뚜 · 스승 우르갼 얘기담아
제67회 베를린영화제 그랑프리 수상
심사위원단 만장일치로 결정돼
"쉽게 전개되지만 많은 것 생각하게"

(우르갼)의 헌신적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표현하는데 집중했다고 한다. 앙뚜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반항심이 생기면서 둘의 관계에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스승의 사랑


다큐멘터리 영화 '앙뚜'로 제67회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문창용 감독(사진 왼쪽)과 전진 감독.
사진제공=엣나인필름

에 대한 앙뚜의 깨달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그 부분을 표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순탄치만은 않았죠. 혼자였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2013년부터 공동감독 겸 프로듀서로 참여한 전진 감독이 함께 고생했어요. 같이 작업하니 더 큰 힘이 됐습니다."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수상한 '앙뚜'는 "관객들을 울고 웃게 만든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란 평가를 얻었다. '앙뚜'는 이번 베를린영화제서 총 4회 상영되는 동안 매진 행진이 이어졌으며, 첫날 상영서는 900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엔딩 직후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한 심사위원은 문 감독에게 "다른 다큐멘터리에 비해 이해하기 쉽고 스토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 살아가며 상실해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한다"고 호평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앙뚜'는 2014년 프랑스 'Sunny Side of The Doc 센트럴 피칭'과 '암스테르담 IDFA 코리아피칭데이 피칭'서 선보이며 전 세계 영화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국내서는 올 9월 개봉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태징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香
DONGUIBOHYANG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